

淸陰 金尙憲의 南槎錄 考察

부영근*

<차례>

- I. 머리말
- II. 南槎錄의 紀行收錄의 特徵
- III. 南槎錄의 世界
 1. 淸陰의 路程과 渡海의 狀況
 2. 濟州의 自然環境과 風俗
 3. 濟州民의 實情
- IV. 南槎錄의 文學史的 意義
- V. 맺음말

I. 머리말

淸陰 金尙憲은 1596년(선조 29년) 庭試文科에 병과로 1608년(광해군 즉위) 文科重試에 을과로 급제 정언 교리 직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서인으로 仁祖反正에 가담하지 않은 淸西派 영수로서 1624년(인조 2) 다시 등용되어 대사간 도승지 대사헌 대제학을 거쳐 예조 공조 형조 이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는 칩화를 주장하다가 파직되고 두 차례나 심양에 잡혀갔으며 1645년 귀국 후에는 좌의정 영돈령부사를 역임하였다. 그가 제주 按撫御使를 배명하여 제주에 입도한 것

* 대구한의대 연구교수(한국 이슬람통새년 주석대전 번역팀 전임연구원)

은 그의 나이 32세로 성균관 전적으로 있을 때였다.

조선조 역대의 국내 기행시문은 수백 편에 이르지만¹⁾ 그 중에서 제주도 기행문으로써 전해오는 것은 수편에 불과하다.²⁾ 그것은 아마도 범선이 유일한 도해 수단이었던 시대에 제주의 바다 길은 매우 험난해서 제주가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기행문을 남기기에는 여러 가지 열악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기행문을 차치하더라도 제주에 대한 기록은 관료 유배 객들에 의해 제한적으로나마 형성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청음 김상헌은 문학적이나 역사 자료적 가치로 보아 빼어난 기행문을 남기고 있다. 그는 제주 안무어사로서 제주 체류 6개월 동안의 기행을 통하여 제주에 이르는 노정과 도해의 상황 자연적 환경과 풍속 및 민정에 대하여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이제까지 남사록에 대한 연구는 임흥선의 <김상헌의 남사록>³⁾을 시작으로 진행되어 최근 들어 이상순에 의해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 고찰>⁴⁾이라는 어느 정도 정돈된 결과물을 얻었지만 남사록이 가지는 지방문화적 가치에 비해 소략한 실정이다. 필자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본격적으로 기록들을 검토하기 이전에 남사록이 가지는 기행수록적 특징을 밝히고 작품분석에 들어가 노정과 도해의 과정을 밝

1) 소재영 김태준 편, 「여행과 체험의 문학(국토기행)」에는 부록에 역대 국내 기행시문으로 249편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2) 시대를 16, 17세기로 한정할 때 여행이라는 이름에 포함되는 제주기행문으로써는 1557년(선조 10)의 임계의 남명소송과 1601년(선조 35)의 김상헌의 남사록이 전해오고 있다.

3) 임흥선, <김상헌의 남사록>, <논문집> 23집, 제주교육대학교, 1994.

4) 이상순,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 고찰>,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8.

히고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이나 풍속에 대한 기록들을 들여다보고 그 당시 제주민의 실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 남사록이 가진 기행문학적 가치를 밝히려 한다.

II. 南槎錄의 紀行收錄的 特徵

남사록은 청음 김상헌의 제주 기행문이다. 1601년(선조 35년) 제주에서 吉雲節 蘇德裕 등의 반역모의가 탄로되어 이들 주모자를 비롯하여 20여명의 연루자가 서울로 압송되고 그 중 일부는 처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조정에서는 제주 도민의 안무를 위하여 성균관 전적 김상헌을 어사로 차견하게 된다. 이때 안무어사의 임무로는 제주 도민에 대한 교서의 선포와 한라산 신에 대한 치제 그리고 비변사에서 마련한 전현직 수령들의 현명 여부 조사 국마와 목자의 실태 조사 민정 시찰 공역에 대한 분명한 원칙 수립 등의 17개 조목이 있었다. 그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일기의 형식을 빌려 그 날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그가 제주를 다녀간 6개월 동안 미 기록 일수는 귀로인 영암포에서 서울에 이르는 12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169일 간은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기행문의 요체는 뭐라고 해도 새로우면서도 진실함이라 할 것이다. 신기한 맛과 진실성이 결여되었을 때 그 기행문은 존재가치를 상실하기 마련인데 남사록은 이러한 기행문의 요체를 잘 살리고 있다. 또 기행문은 여행이나 유람과 관련이 있는 글이기 때문에 항상 특정 지방의 색깔과 접하게 되며 작자는 가능한 그 지방의 이색적인 소재를 찾으려하고 또 이를 표현해 보려 한다. 이 과정에서 작자는 주관적인 감흥에

짓기도 하는 것이니 기행문은 객관적인 서술이지만 주관적일 수도 독단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자칫 왜곡된 표현이나 때로는 오해와 편견도 수반하기 쉬운 법이다. 그러나 남사록에서는 전편을 통해 지나친 과장 정확성을 상실한 관찰 독선적인 판단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주관에 치우친 생각을 바로잡으려 하였다.⁵⁾ 예컨대 충암이 제주도민을 일컬어 '이로움만을 찾는 일을 일삼고 염치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였는데 청음은 '내가 지방민을 보니 밖으로는 어리석고 굼뜨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공교로운 지혜가 있으며 말하는 것을 들으니 말에 조리와 의리가 있어 사람을 감동시켜 경칭하게 한다'라고 하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음이 남사록 수록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서술하는 소재에 대하여 이전 기록을 상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문장으로 진실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목 대목에서 자기의 주관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예컨대 그는 9월 22일자 의 일기에서 地誌 沖庵錄 風土錄 林梯의 南溟小乘 崔溥의 漂海錄 등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그 자료에 기록된 것과 자신이 직접 체험하거나 문견한 것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기후 역사 지리 풍속 토산 등에 대하여 광범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가) 『지지』 풍속은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딘다.(하략)⁶⁾

나) 『풍토록』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 남극 노인성을 굽어보면 밝기가 셋별과 같다. 일명 고남이라고 한다.(하략)⁷⁾

다) 『충암록』이 읍의 풍토는 유별나고 모든 일이 다르다.(하략)⁸⁾

5) 임흥선, <김상헌의 남사록>, 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23집, 1994.

6) 9월 22일: 『地誌』 風俗 耐寒耐暑(下略)

7) 9월 22일: 『風土錄』 登漢擊山絕頂 俯觀南極老人星 大如明星一名孤南(下略)

- 라) 『입자순의 남명소승』 섬은 우리나라 정남에 있는데 한라산이 그 가운데서 좌우 양쪽 날개를 펴 한일자로 가로놓였다.(하략)⁹⁾
 마) 『표해록』 제주 사람 손효기가 말하기를 “우리 고을은 멀리 큰 바다 가운데 있다.” 하였다.(하략)¹⁰⁾

위의 가)~마)까지의 기록을 통해 청음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려는 작가 정신을 엿 볼 수 있다. 청음은 제주안무사로 출발하기 이전까지 제주에 대하여 남겨 놓은 선인들의 기록을 박람하고 미리 기록해 두고 혹은 꼭 필요한 자료들은 행장에 꾸러 넣어 가지고 와서 필요할 때마다 내어 보고 참고하였다. 이러한 그의 철저한 작가 정신은 일정 부분 그의 자주적인 사상에 기반 한다.

이미 조선후기는 조선중화사상에 입각하여 조선제일주의를 천명¹¹⁾하는 문화선진국으로 자주적이고 부국강병한 국가라는 것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가 망해가는 사대주의에 물든 나라가 아니라 자주적인 부강한 나라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주도해 나간 우암 송시열이 재조명 되었고 청음 역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가 그 동안 조선 성리학 이념에 입각하여 春秋大義論을 내세우며 척화를 하고 북벌을 주도했던 청음에 대한 평가는 자주적이고 개혁적이기보다는 사대주의에 물들어 국제정세에 어두운 고지식한 인물로 평가되었던 것이 사실이다.¹²⁾ 물론 정치 경제 문화사적인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 남사록의 기술을 통해 그가 보여준 작가 정신 속

8) 9월 22일: 『冲庵錄』 此邑風土 別是一區事事殊(下略)

9) 9월 22일: 『林子順 南溟小乘』 島在國之正南而漢擊峙其中 張左右翼 如一字橫鋪(下略)

10) 9월 22일: 『漂海錄』 濟州人孫孝枝曰我州 遊在大海中(下略)

11)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1998.

12) 지두환, 「우암 송시열의 사회경제 사상」, 『한국학논총』 21, 국민대학교, 1999.

에서도 청음이 우암 바로 앞선 시기에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Ⅲ. 南槎錄의 世界

남사록은 1601년(선조 35) 8월 10일에 제주 안무사의 배명을 받고 13일 서울을 출발하여 이듬해 1월 25일 朝天館을 출발 2월 1일 영암의 於蘭浦에 도착하여 14일 서울에 도착하여 복명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일기 형식을 빌려 소상히 기록한 기행문이다.

남사록에서는 제주 해로를 직접 체험한 느낌을 소상히 설명하였고 제주 안무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의 여러 곳을 순행하면서 군사 시설 행정 시설의 위치 설치 연혁 규모 등을 기록하였고 제주에서 구전되는 설화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의 느낌들을 60여 편 200여 수의 자작시와 제주와 관련 있는 문무관원 20인의 시를 남겼으며 제주의 주요 건축물의 위치와 곶과 토산품의 종류와 진공수를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을 토대로 청음의 노정과 도해의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제주가 지닌 독특한 자연환경과 풍속들을 소개하고 그가 제주 안무사의 임무를 수행하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생하게 체험한 백성들의 실정을 기록한 부분에서 그의 애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淸陰의 路程과 渡海의 狀況

청음은 1601년(선조 35) 8월 10일 제주 안무사를 배명하고 이 달 13일 서울을 출발하여 지금의 용산 수원 진위 직산 전의 공주 은진 완산 금구

정읍 장성 나주 영암에서 숙박하고 같은 달 29일 제주의 바닷길을 도해하기 위한 전초기지였던 강진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그는 9월 1일부터 같은 달 20일 까지 강진과 해남에서 候風하며 도해의 시점을 기다리다가 다음 날 발선 毛老 獨巨 草島 竹島 漁蘭 於蔚 應巨 馬索 長苦 非島 를 지나 廣鵝島에 이르러 해중 선상에서 일박하고 22일 다시 발선하여 원래 기착지였던 조천관에 배를 대지 못하고 涯月浦에 상륙하였다. 도착한 다음날부터 곧바로 업무에 들어가서 12월 26일까지 안무사의 임무를 수행하고 봄이 되어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린 다음 발선하라는 주위의 권고에 대하여 복명을 늦출 수 없다¹³⁾면서 같은 달 27일부터 다음 해 1월 24일까지 조천관에서 候風하다가 다음 날 출발하여 귀로하던 중 풍랑으로 선상과 초란도 암석 아래, 추자도 당포 선상 등에서 유숙하다가 다음달 1일 영암의 어란포에 상륙하여 같은 달 14일 서울에 도착 복명하였다.

위의 기록에서 그 당시 서울에서 제주에 이르는 개략적인 노정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17세기라면 일부 표해록에 남아 있는 것 외에 해로에 대한 뚜렷한 체험이나 기록이 많지 않는데 그의 제주 해로에 대한 지정학적 설명은 기행의 귀중한 간접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는 어사의 행차 규모에 대하여 소상한 기록을 남겼다. 이 때의 어사의 행차 규모를 보면 좌선 1척 전라수사가 내놓은 호송선 4척 제주판관의 영후선 4척 전라병사가 제주 원군을 보내는 병선 2척 등 모두 9척이었다. 그리고 어사를 호송하는 일행은 香陪史 隨陪 馬頭 守從人 奴 介 軍官 濟州領船 이하 38명이었다.

13) 12월 27일: 食後發行 出東門 州人故老等 咸聚于道邊 告於馬前曰即今歲暮風日險惡 此時 雖商賈船決不可渡海 請少遲數日 待立春之後 下館候風 未爲晚也 余答以使事已竣 不可坐此淹留之意

보통 제주의 뱃길은 바람을 타면 하루 만에 도착할 수도 있는 그리 먼 해로는 아니었는데 청음이 제주에 도착하고 귀경하는 뱃길이 총 8일이 소요되었는데 이것은 순전히 바다에서 보낸 시간이고 도해에 앞서 후풍하는 약 50일의 기간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그는 빨리 복명하고픈 심정을 시심에 드러내었다.

南雪曾聞到地消	남쪽 눈 땅에 떨어지면 녹는다고 들었는데
如何此日恣灑疎	어찌하여 오늘은 멋대로 쏟아지는가!
臘前農識堪豐稔	그믐 전에 농참을 보니 풍년든다 하였고
歲後梅花不寂寥	세후의 매화는 적막하지 않구나!
堂浦靑烟生白屋	당포의 푸른 연기 흰 지붕 위로 일어나고
擘峯玉骨聳寒宵	한라봉 고운 모습 찬 하늘에 우뚝하네.
孤舟欲發山陰興	외로운 배 떠나려니 산음이 일어나고
極目滄溟萬里遙	바다 끝 바라보니 만리 가득 아득하네. ¹⁴⁾

이 작품은 청음이 제주안무사의 임무를 마치고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귀경하려고 조천관에서 머무르며 지은 것이다. 작자는 기구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뱃길을 온화하여 눈이 내려도 땅에 닿기 전에 녹아버린다고 들은 제주의 겨울눈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하염없이 내린다고 푸념하였다. 그것도 잠시 안무사의 본분으로 돌아가 나의 발목을 잡는 눈일지라도 백성들의 삶을 넉넉하게 해줄 서설이라 이해하고 매화의 그윽한 자태를 통해 평상심을 회복하였다. 나아가 온통 새하얀 마을 지붕에서 피어오르는 평안의 연기를 저 우뚝한 한라산이 감싸준다는 덕담도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결국에서 자신의 행로가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

14) 1월 13일: <雪中遣興>

가지 못하는 아득한 현실이 빨리 회복되기를 소원하였다.

어쨌든 청음이 배를 탄 시점이 여름과 겨울이니 곧 바다 길이 가장 때를 만나기 어려운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의 두 달에 육박하는 시간을 도해에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도해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흥미로운 기록을 그가 제주를 출발하기 전 조정에 요청한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는 애초 비변사에서 이번 공행에 한어와 왜어 통역 각 한 사람씩을 동행하도록 해 달라는 추청을 올렸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다¹⁵⁾는 기록에 이어 다음과 같은 최부의 표해록의 일절을 인용하고 있다.

최근남의 표해록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공사나 사사로 제주를 왕래하다가 더러 바람을 만나 행방불명이 된 자가 셀 수 없이 많다. 이어찌 모두 물에 빠졌겠는가. 섬 오랑캐 나라에 표류해 들어갈 것 같으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랄 수 없게 되고 비록 더러 중국의 영토에 표착해도 역시 해변 사람들의 오인으로 왜적이라 하여 귀를 잘라 상을 타니 누가 그 실정을 판별하겠는가. 우리나라도 증조의 제도에 따라 높고 낮은 모든 사람에게 호패를 주고 또 통역 한명을 제주에 두어 시신과 삼 읍 수령을 받들게 하며 왕래할 때 항상 같이 다니게 하여 장래에 대한 생각을 해 두면 이런 걱정을 모두 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¹⁶⁾

위의 내용으로 보아 청음은 제주로 떠나기 이전 바다 길에 대한 많은 자료를 박람하고 혹시 자신에게 벌어질지 모를 표해의 상황으로 인해 임무를 수행하지도 못한 채 허무한 상황을 연출하지나 않을까를 염려하

15) 8월 10일: 本司 又啓請給送軍官二人 漢倭通事各一人 都監砲手二名 答曰不可

16) 8월 10일: 按崔錦南漂海錄 我國人爲公爲私往來濟州 或遭風無去處者 不可悉數 是豈盡沈於海波乎 若漂入島夷者 無復望還 雖或漂至中國之界 亦爲邊人所誤認 謹以倭賊 折賊受賞 誰能辨其情乎 我國若依中朝制 凡上下人員 各給號牌 又置通事一員於濟州 凡奉使臣及三邑守令往來 常時帶行 以圖宴慮然後 庶免此患云

였는데 위의 표해록 일절의 제시는 비변사에서 통역자 대동을 주청한 이유의 간접적인 설명이면서 제주 바다에 대한 인식 내지 도해의 어려운 신상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는 배를 타서 도해하며 겪은 생생한 경험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였다.

(上略)

나는 여러 가지로 판단하지 못하고 속히 배를 돌리라고 명령을 내렸으나 선인들은 모두 불편하다고 하였다. 잠간 사이에 풍세가 더욱 급해지며 엄청난 파도가 배를 누르는데 물이 봉옥에 가득하고 파도를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금방이라도 침몰할 듯하였다. 바람과 물이 서로 부딪혀 물거품을 뿜고 비를 이루는데 배 안의 사람들은 눈을 뜰 수도 없었다. 이렇게 되면 어찌할 수가 없다. 최금남이 말한 '내닫고 찌르고 다닥질하고 날뛰고 소리는 친지를 찢는다는 것이 참으로 맞는 말이다. 사공들은 또 한쪽 돛을 내렸다. 격군 가운데 제주 본 바닥 사람도 또한 배 멀미를 하는 자가 많아서 모두 토하고 싸고 뒹굴고 짜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다만 하늘을 향하여 염불을 할 따름이다. 나는 이종일과 같이 친히 지휘를 하는데 마침 배 멀미를 하지 않는 8-9명이 있어서 상아대를 잡기도 하고 키를 운전하기도 하고 안에 저장한 널판을 치우기도 하고 나무 통으로 분담을 정하여 물을 퍼내었다. 배가 왼쪽으로 기울면 물이 왼쪽에서 들어오고 오른쪽으로 기울면 오른쪽으로 들어와 한번 숨쉬는 동안에도 뒤집힐 것 같은 기세이다. 이 배가 새로 만든 배이고 물건들이 모두 단단한 것이었기에 잘못되기를 면했지 만약 썩은 판자와 밧줄을 싣고서 요행으로 건너기를 바랐다면 어찌 고기밥이 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¹⁷⁾

(下略)

17) 9월 22일: (上略)余未及多辨速 令回船而船人 皆云不便 俄頃之間 風勢漸急 駭浪壓船 水滿蓬屋 隨濤上下 載汎載沒 風水相射 噴沫成雨 舟中人 不能開眼 到此地頭將無可奈何 崔錦南所謂奔衝激躍響裂天地者 眞實狀也 沙工等 又落一帆 格軍中濟州土人 亦多有水疾者 皆嘔洩顛仆罔知所爲 但向天念佛而已 余與李宗一

위의 기록은 청음이 강진에서 배를 띄어 제주로 입도하는 22일의 과정을 담은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도해의 과정에서 심한 풍랑을 만나 이를 동안 사지를 돌아다니다가 겨우 애월포로 상륙하는 과정을 여과 없이 사실 그대로 드러내었다. 이 기록을 보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너무도 선명하게 마치 체험하는 것처럼 긴박한 정황을 느낄 수 있다.

2. 濟州의 自然環境과 風俗

청음은 남사록 곳곳에서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풍속에 대하여 피력하고 있다. 물론 그의 임무에 속한 국마와 목자의 실태조사와 호구 실태 조사 등과 같이 속속들이 제주에 대한 현재 상태를 조사하려다 보니 덤으로 얻어지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청음은 실제로 체류한 9월 22일에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우천이나 기타 자연적인 요인 등 다른 요인이 없는 한 쉬지 않고 제주의 곳곳을 이 잡듯이 돌아다녔다. 비록 우천시라 할지라도 향교에 나가 강학을 통해 제주의 유생들을 점검하고 그들과 대화를 통해 많은 제주의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다.

예컨대 그는 지지에 기록되어 있는 제주에서 산출되는 물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 해산물의 한자식 명칭 곧 銀口魚(은어) 海菜(미역) 玉頭魚(옥도미) 刀魚(칼치) 占道魚(고등어) 行魚(멸치) 烏賊魚(오징어) 등의 기록과 제주의 사투리를 소개하였는데 숲을 꽃이라 하고 산을 오름이라 하고 손톱을 굽이라 하고 입을 굴레라 하며 굴레는 녹대라고 하며 또 가달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金寧 廢縣의 자리를 고증하였고 제주

親自檢督 適有不爲水疾者八九人 或執篙 或運舵 或撤去藏中板木 或以木桶分曹 括水 舟左傾則水從左入 右傾則水從右入 覆敗之勢 決在呼吸 賴是新造之船 什物 亦皆堅緻故 得免 吳載若如腐板朽索 僥倖望濟者 安得不爲鯨魚之食也(下略)

의 바닷가 일대를 돌아가며 쌓은 만리장성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매우 특이한 기록이라 여겨진다. 그 중에서 『南溟小乘』¹⁸⁾에 ‘동정에는 굴이 있으나 배회기 없고 서호에는 배회는 있으나 굴이 없는데 이제는 동정호와 서호가 눈앞에 함께 있구나’¹⁹⁾며 재주의 풍물을 이채롭게 표현했던 임제의 얘기를 소개하였고 굴을 소재로 시를 짓기도 하였다.

두 수증 한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金橘經秋正飽霜 金귤은 가을 지나 넉넉히 서리 맞았는데
噴人霏霧怯初嘗 입안 가득한 시큼함 맛보기 겁나네.
懷中數日餘香在 주머니 속에 며칠 두었는데도 향기가 여전하니
幾度思歸感陸郎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말아 보게 하리라.²⁰⁾

굴을 소재로 한 시들은 우리 선인들의 작품 속에 많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 재주의 굴을 직접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다만 麗朝의 이규보의 靑橘 세수²¹⁾에서 출발하여 동계 정은이 태수기 굴을 보내온 것을 보고 “등굴게 생긴 진기한 과일 크기 주먹만 한데/ 거친 껍질 연한 속살은 본래부터 타고난 것이네/ 처음에는 용의 알이 주 껍에서 왔다고 여겼더니/ 다시금 반도가 선계에서 온 것인가 의심한다오/ 눈앞에 마주대하자 온몸에 향기가 젖어들고/ 목을 넘어가자 오장육

18) 『南溟小乘』은 1577년(선조 10년) 白湖 林梯가 28세 되던 해에 문과에 급제한 후 당시 제주 목사인 부친 林焄에게 과거에 등재한 인사를 드리고자하여 그해 11월 3일 고향을 출발하여 12월 9일 제주 조천관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과 12월 10일부터 다음해 2월 16일까지의 제주에서의 기행 그리고 2월 그믐날 제주를 출발하여 3월 5일 고향에 도착하기까지의 4개월 동안의 노정을 기록한 일기체 한문 기행수필이다.

19) 10월 15일: 余虐曰洞庭 有橘而無梅 西湖 有梅而無橘 今者 洞庭西湖 俱在眼前

20) 10월 22일: <新橘>

21) 이규보, <次韻濟州守崔安以前所寄詩韻問訊兼脫靑橘三首>, <동국이상국집> 3권.

부에 묵은 병이 낫는구려/ 효자의 품속에서 떨어졌던 일 돌이켜 생각하니/ 천년의 깊은 정성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구나.22)(珍果團團大似拳/ 麤皮軟肉本天然/ 初疑龍卵來珠闕/ 更訝蟠桃自羽仙/ 照眼一身香臭濕/ 經喉五腑宿痼痊/ 翻思孝子懷中落/ 千載深誠恨未傳)라고 읊었는데 제주의 굴을 노래한 작품 가운데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소개한 작자들의 굴에 대한 인식은 제주의 백성들이 제주의 귀한 토산물인 굴마저 민고의 원인이 되었으니 진공을 빙자한 수탈이 극심하였기 때문에 민가에서는 굴유를 독약과 같이 보고 재배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나무를 가진 자는 잘라버려서 관의 시달림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느낌을 가진다.

이 작품에서도 작자는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굴을 보고 벌써 예전의 시름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이윽고 상성한 모습 그대로 향기를 보존하여 서울의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며 아련한 향수를 떠올린다.

그는 여러 군데에서 地誌 혹은 冲庵錄 南溟小乘 漂海錄에 수록되어 있는 기록들을 이용하여 제주의 풍토를 소개하였는데 그 중에서 風土錄을 인용한 부분을 예를 들어 보겠다.

지독하게 귀신에 제사를 숭상한다. 표해록에서도 또한 말하기를 선인들은 최공이 바다에 표류한 것을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은 탓으로 돌렸다고 했는데 민속이 음사를 숭상하는 것은 옛날부터 그런 것이다. 또 말하기를 남자 무당이 대단히 많다. 내가 주아에 머물고 있는데 어느 날 객사 밖의 민가에서 굿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 곧 무당을 잡아오게 하니 잘난 채하고 교만스런 남지였다. 이유불 붙으니 '이 병의 풍속이 옛날부터 이자 무당은 없고 대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는 일은 모두 남자가 합니다'한다. 이는 틀림없이 신라 화랑의 유풍일 것이다.23)

22) 정은, <太守送槎>, <동계집>

청음은 무당을 흠신하는 제주의 풍속을 풍토록에 소개된 최부의 표해록까지 끌어들이어 소개 하였다. 여기에서 제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제주를 떠나 바다에 의지하여 불확실한 삶을 유지하는 섬사람들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이러한 불안감은 무속에 자연스럽게 발을 들여놓게 만드는데 이후 100여년 뒤에 瓶窩 李衡祥이 제주 목사로 와서 200여 곳의 신당을 철폐하여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빌미로 또 다른 착취를 일삼는 무당들을 생활현장으로 되돌려 보내는데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몰지각한 처사라는 후세 향토사학자들의 혹평을 받았고 이 후 무당들의 주문에서도 병와의 이름이 거론되었지만 요사이 그가 남긴 탐라순력도를 기준으로 제주목 관아지가 복원된 것은 아직도 역사의 평가를 미뤄야하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다.

3. 濟州民의 實情

청음에게 주어진 어사의 사목 17개조를 검토해보면 폐막 조사에 큰 비중이 두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에서 반역의 변이 모의되고 또 도민 중에서 거기에 추종하는 무리가 생겨난 것은 민심이 관에서 이반되어 있던 사회적 상황에 큰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도민의 위무를 위하여 폐막을 조사하고 민생의 질고를 풀어주는 것은 어사의 중요한 의무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런 까닭에 남사록에서는 비교적 많은 대목에서 폐막에 대한 언급이 발견된다.

우선 청음이 제주민의 실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얘기

23) 10월 22일: 風土錄 酷崇祀鬼 漂海錄 亦云船人 以崔公漂海 歸咎於不爲祀神之故 俗尙淫祠 自古而然 又云男巫甚多 余留州 日間客舍外民家作巫事則拿致巫人一僊蹇男子也 問其故 土俗自古無女巫 凡祀鬼禱神之事 皆男巫爲之云 此必新羅花郎之遺風

하기 전에 그의 성품이 드러난 부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의 애민의식의 근저를 살펴려 한다. 남사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로 보아 청음의 성품은 강직하면서도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의 기록들을 통해 일단을 살펴보기로 하자.

가) 이번 행은 다른 때의 사명과 같지 않고 향축과 교서가 있으므로 수령과 더불어 講禮할 수 없다.²⁴⁾

나) 사신으로써의 임무를 마쳤으므로 여기에 더 머무를 수 없다.²⁵⁾

다) 선인들이 와서 하소연하기를 본 도는 연달아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많이 굶주리니 뱃사람들이 올 때에 토산품을 팔아 육지의 물건과 바꾸어 돌아가 처자식을 살리고자 하는데 오늘 여기에 도착한지가 며칠이 안 되어 교역할 틈도 없이 곧바로 출발해 버리면 무리들의 바람이 크게 어그러지니 엿드려 바라건대 7-8일 정도 머물렀다가 출발해 주십시오. 부득이 하여 본 현에 머물렀다.²⁶⁾

라) <고기밥이 된 것을 조문한다.> 시를 지어 기록하지 않는다.²⁷⁾

가)는 청음이 처음 제주성에 도착하던 날 밤 제주의 관리가 목사와 더불어 대면의 예를 가질 것을 요청했을 때에 명분으로 어사의 위엄을 보인 대목이고 나)는 청음이 안무사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려 할 때에 주변에서 바람이 심한 겨울보다는 잔잔한 봄을 기다려 출선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이유 없이 복명의 시기를 늦출 수 없다며 거절한 내용인데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강직한 그의 성품을 느낄 수 있다.

24) 9월 22일: 今行 與他使命不同 香祝教書在前 不可與守令講禮

25) 12월 27일: 使事已竣 不可坐此淹留之意

26) 8월 13일: 船人等 來訴日本島連歲凶 土人多飢餓 舟中人來時 或賣土產蓋物 欲買糧於陸地 歸活妻子 今到此未數日 不暇交易 道行若發 群望大缺 伏望姑停七八日發行云 不得已仍留本縣

27) 12월 18일: <弔魚腹>不錄

다)는 제주로 도해하려 할 때에 함께 할 뱃사람들이 무역하기에 촉급 하니 말미를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그들이 생업을 도모할 수 있게 해 준 대목이고 라)는 12월 18일 전 판관의 호송선 한척이 침몰하여 정부 42명과 우마 23두가 모두 빠져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그날 일기 끝에 시제를 쓰고 나서 이 엄청난 사건을 소재로 시를 짓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한마디 말로 대신하였는데 이러한 두 가지의 정황에서 그가 백성을 아끼고 그들을 사랑했던 인정스런 모습을 엿 볼 수 있다.

그런데 제주는 해외에 위치하여 조정의 감독권 밖에 있었으므로 관의 가림주구가 어느 고장보다 극심했고 도민은 이를 하소연할 길마져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청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행실을 삼가지 않는 무리가 스스로 해외임을 믿고 함부로 탐욕스럽게 배 앓고 백성을 대할 때의 행동이 무리한테 대하여 섬의 모든 사람들이 원통한 마음을 품고 있으나 펴지 못하고 한번 서울에 가서 조금이라도 괴로운 사정을 위에 알리고자 하지만 수령이 자기의 악행이 알려짐을 싫어하여 물건을 가지고 가는 자를 제외하고는 섬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²⁸⁾

관료들의 가림주구가 제한 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들은 심지어 자신의 악행을 숨기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명목으로 제주의 백성들을 마치 죄인처럼 가두고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아 백성들의 삶을 도륙하였다.

이제 구체적인 기록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쟁점화 해보도록 하겠다. 청음은 남사록에 橘柚의 폐해에 대하여 상세히 수록하였다. 심지어 그

28) 9월 22일: 武吏之不謹者 自恃海外恣意貪割 涖民之際 動行無理之事 一島之人 抱冤莫伸 皆願一至京城 少達悶迫之情而守令 惡其流播已惡 陪持進上者外 禁不許出

는 제주 감귤류의 진공수를 상세히 소개하였는데 그것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濟州柑橘類進貢數〉

구분	본주	장원서소납	대정	정의	계
		세전세후			
유자	960	280	180	175	1595
감자	29470	500 500	530	525	31525
금귤	1420	1000	500	500	3420
유귤	2800	700	400	390	4290
동정귤	3040	2000	750	740	6530
산귤	540	500			1040
청귤	530	2000	50	750	3330
당유	결실에 따라				
계	38760	4480 3000	2410	3080	51730

표2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관리들이 조직적인 수탈이 행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수량이 전혀 천재지변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 기사에서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진공하는 수가 이렇게 광범위하고 많은데 결실이 잘 안되었을 때에는 매년 7-8월에 목에서 군관들로 하여금 촌가를 순시하며 굴유가 있는 곳에서 붓으로 하나하나 점을 찍어 장부에 기록하고 가을이 되어 꺾이 익는 날에 장부와 대조하여 수납한다. 바람과 비에 손상을 입었던지 까마귀나 참새가 쪼아 먹은 것이 있으면 집 주인에게 그 나머지를 내놓아 보이게 하고 그렇게 못할 때는 장부에 적힌 대로 바치도록 하였다.²⁹⁾

29) 참고로 이 표는 김희동이 1992년에 번역하여 명가문화사에서 간행한 《남사록》에 들어 있는 것을 원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위의 기록으로 보아 그 당시 굴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이러한 부조리가 극복되지 못하여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것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어지는 느낌을 받는데 이 후 100여년의 세월이 흘러 石北 申光洙와 잠녀의 대화에서 잠녀가 전복을 따는 이유를 밝힌 대목에서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기 위해 일년 내내 전복을 따야하는 고달픈 삶을 얘기하면서 전복이 많이 나는 절기에는 일정한 수량만을 세금으로 받고 더 이상 받지 않아서 과잉 생산되게 하여 전복을 헐값으로 만들어 관리들이 사람을 시켜 싸게 사들였다가 전복이 나지 않는 절기에 일정한 수량을 세금으로 바치게 하여 미치지 못하는 잠녀들에게 헐값으로 사들인 전복을 강매하여 잠녀들의 생활기반을 무너뜨려 만약 세금을 내지 못하면 자식을 팔아야 하는 고통을 강요하는 현실을 얘기했던 일을 연상하게 한다. 그리고 저 북청의 거지 부부가 남편이 구걸한 음식을 아내가 나눠달라는 요구에 남편이 돌로 아내의 가슴을 내리치는 상황이 미리 예견된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 마치 청음이 100년 전의 예언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국 그는 제주의 유생들과의 대화에서 다섯 가지 제주의 폐막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제주객사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빈 객사를 지키자니 심심하기가 날로 심해져서 교생들을 불러 본도의 고사를 묻다가 얘기가 제주의 오대 폐막에 미쳤다.³¹⁾

30) 10월 23일: 進貢之數如此 其廣大而或所結實數不足之時 每歲七八月 牧使軍官 巡視村家 有橘柚處 以筆筒筒傍點而記簿 至秋橘柚熟之日 按簿考納 或被風雨所損 烏雀所殘則徵其餘於家主 如不得應徵依簿隨之

31) 12월 18일: 留濟州客舍 久寓空館無聊日甚 招校生等 問本島故事 仍及弊瘼

청음은 12월 18일 제주 객사에 있다가 무료함을 달래려고 교생들과 얘기 도중 제주의 오대 폐막의 정황을 듣고 여과 없이 기록하였다. 삼 읍의 수령이 모두 그 관할 지역 안의 벼슬아치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말을 장부에 올려서 혹은 戰馬라 부르며 혹은 應求라 하면서 억지로 빼앗는 '封送馬之弊'이고, 삼 읍이 또 소를 가진 사람을 장부에 올려놓고 이것을 생물가라고 하는데 장부를 보고 끌어와서는 때려 죽여 잡아먹는 '生物價之弊'이고, 본 주의 군관들이 위세가 수령보다 더하여 부도덕한 짓을 서슴치 않는 '營軍官之弊'이고, 본주에서 매년 사냥으로 잡은 노루와 사슴을 進上인이 上京할 때 억지로 떠 맡겨 무리한 요구를 하는 '京貿易之弊'이고, 마지막으로 임금님께 진상할 좋은 말을 선발하는 점마들이 바쁜 농번기에 일을 벌여 민생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고 한번 짐작은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착출하는 '京點馬之弊'이다.

이러한 폐단으로 인하여 한 고을이 백성들의 삶의 기반이 뿌리 채 흔들리고 뿔뿔히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란이 발생했다고 그는 마치 임금님이 내려준 제주안무사의 숙제에 답을 써내려가듯이 침착하게 정리하였다.

32세의 젊은 나이로 민심을 위로하는 제주안무사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는 남쪽 변방 도서벽지의 참혹한 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났는데 그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뼈 속 가득 새길 수 있었다. 이것은 그의 향후 정치 행로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IV. 南槎錄의 文學史的 意義

남사록은 청유 김상헌이 32세 때 제주안무사를 배명하여 6개월 동안 제주를 여행한 일기체 기행수필이다. 환해절도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제주 기행문이 영성한 실정에서 남사록은 문학적 역사 자료적으로 가치성이 높은 작품이라 평가할 만하다. 먼저 기행문학으로써의 남사록의 가치를 검토해 본다. 기행문이라고 할 때 그것은 자기가 정주하고 있는 이외의 지방을 여행하면서 체험하고 견문한 것과 그에 대한 느낌을 기록한 문장이다. 그리고 그 내용적 특성은 여행의 목적과 동기를 설명하고 노정과 일정이 밝혀져야 하며 여행하는 지방의 특색을 파악하여 지방색과 이역취미를 살리고 작자의 주관과 비판의식이 뚜렷이 나타나면서도 서술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지 않고 작자의 즉흥적인 감상을 가미하여 독자에게 지루한 감을 주지 않으면서 과장과 허위가 없이 표현하는 것 등이다. 남사록은 이와 같은 기행문의 성격에 거의 부합되는 기행문이라 하겠다.

제주 기행 문학사적 측면에서도 남사록은 기존 충암 김정 의 제주 유배시에 풍물을 기록한 것과 백호 임제가 젊은 나이로 제주를 여행하면서 풍물을 기록한 남명소승 금남 최부가 남긴 표해록의 기록문화를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중간 정리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한 과도기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실제 이후 이것을 바탕으로 복헌 김춘택의 『囚海錄』 석북 신광수의 『耽羅錄』 등과 같은 단행 기록뿐 만이 아니라 제주를 다녀간 관료 유배객 여행객들의 문집에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점은 남사록이 가지는 또 다른 가치라고 하겠다.

한편 위에서 이미 살펴본 제주의 풍물적 특색도 그러하지만 남사록을 통해서 낱알처럼 얻을 수 있는 단편적인 기록들은 제주도 향토사 연구

의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갖는다. 남사록에 들어있는 단편적인 기록들을 대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어도 17세기까지라면 아직 우리나라엔 해로에 대한 뚜렷한 체험이나 기록이 많지 않은데 남사록의 제주해로에 대한 지정학적 설명은 기행의 귀중한 간접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작자는 자신이 몸소 향해한 해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본토의 나주 해남 강진에서 제주의 涯月 都近川 조천 등에 이르는 해로의 설명 제주 해로에서 避風處로써의 추자도의 위상 풍향에 따라 달라지는 도착지 등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³²⁾

둘째 청음은 제주를 순행하면서 제주 성을 비롯하여 別防城 旌義縣城 西歸防護所 東海防護所 進歸防護所 明月防護所를 점검하고 그 위치와 설치 연혁 규모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정의 대정 삼현의 군사수 군량미의 비축량 호구와 인구 수 國馬數 牧子數 兵船數 兵船이 정박할 수 있는 포구 수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주뿐만이 아니라 조선조의 군비상황을 살펴보는 데 일조가 되는 자료라고 평가된다.

셋째 그 물을 마시면 능히 100보를 날게 된다는 ‘斗泉’의 기를 胡宗묘이 놀러 버렸다는 전설³³⁾ 모친이 중병을 앓을 때 자신의 넉적 다리를 삶아 배어 먹여 구완하고 20년을 봉양했다는 金寧里 향리인 효자 金秤의 이야기³⁴⁾ 고려의 金方慶이 三別抄를 정벌하러 탐라로 가던 중 추자도에서 풍랑으로 갈길이 막혔는데 김방경이 하늘을 우러러 사직의 안위를 탄식하자 풍랑이 멎었고 이로 인하여 추자도를 候風島라 불렀다는 이야기³⁵⁾

32) 10월 22일, 1월 28일.

33) 10월 17일.

34) 10월 12일.

등은 훌륭한 說話資料이다. 또 燃燈節의 유래와 그에 얽힌 습속³⁶⁾ 그리고 淫女島 이야기³⁷⁾ 등은 민속적 가치를 지니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빛새 남사록에는 청음의 지작시 60여 편 120여수와 제주와 인연이 있는 문무관원 20인의 시 40편이 실려 있다. 모두 제주도의 토속을 소재로 하여 지어진 것으로 제주의 풍토를 묘사한 한문학의 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이 밖에도 고려 忠正王 2년에 왜구가 추자도에 침노해 들어와서 주민들을 都近川里로 移居시켰다는 이야기³⁸⁾ 탐라 때 쌓은 環海長城이 제주 섬을 돌아가며 끊이지 않고 곳곳에 이어져 있다는 기록³⁹⁾ 飛揚島에 箭竹이 나는데 삼 읍이 모두 여기에서 배어다 화살을 만든다는 기록⁴⁰⁾ 굴과 토산품의 종류와 進貢數에 대한 기록⁴¹⁾ 등도 제주 향토사 연구의 중요한 기록들이다.⁴²⁾

V. 맺음말

이상에서 청음 김상헌의 제주 체류 6개월의 기록인 남사록을 제주의 풍토를 묘사한 한문학적 자료라는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논의된 부분들

35) 1월 28일.

36) 1월 27일.

37) 1월 26일.

38) 1월 28일.

39) 10월 12일.

40) 10월 17일.

41) 10월 22일.

42) 참고로 문학적 의의에 들어 있는 내용은 임흥선의 <김상헌의 남사록>의 결론 부분을 거의 수용하여 인용했음을 밝혀둔다.

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으려 한다.

첫째 남사록은 주요한 기행수록적 특징의 국면을 지니는데 거의 모든 기록에서 바로 자신이 보고 느낀 점을 수록하지 않고 기존의 기록들에 견대 地誌 漂海錄 冲庵錄 風土錄 南溟小乘의 기록들과 제주와 관련 있는 20여명의 문무관원들의 시를 삽입하여 기록의 객관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둘째 청음은 남사록에서 그의 안무사로써의 노정과 제주로 들어오고 나가고 후풍하는 과정을 소상히 수록하였는데 그 중에서 제주에 들고 나는 해로를 상세히 기록한 것은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셋째 그는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풍속에 대하여 기록을 남겼는데 당시의 지방 문화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넷째 청음은 안무사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백성의 실정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하여 치세의 방편으로 삼으려 하였다. 그 중에서 교생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다섯 가지의 폐막을 소상히 기록하여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그의 젊은 날의 경험들은 그의 앞으로의 인생역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리란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남사록이 가지는 문학사적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전의 기록들을 계승하고 중간 정리하여 다음 대와 이어주는 과도기적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과 여러 가지 단편 기록들은 향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점은 남사록의 성과이면서 필자의 제일의 논지가 되었다.

주제어

기행문학, 풍토지, 자연환경

참고문헌

-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정 운, 『동개집』
임홍선, 「김상헌의 남사록」, 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23집, 1994.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1998.
지두환, 「우암 송시열의 사회경제 사상」, 『한국학논총』 21, 국민대학교, 1999.
줄 고, 「북원 김춘택의 수해록의 한 국면」, 『한문학 연구』 계명한문학회 17집,
2002.
_____,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 시 고찰」, 『영주어문』, 2005.
_____, 「석복 신평수의 『탐라록』 고찰」, 『영주어문학』 제8집, 2004.
_____, 「지방문학으로써 석복의 한시」, 『동아인문학』 제6집, 2004.
_____, 「동계 정운의 제주 유배 시 고찰」, 『동아인문학』 제11집, 2006.
_____, 「병와 이형상의 한시 연구」, 『계명한문학』 제14집, 2000.
이상순,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 고찰」,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8.

Abstract

Study on 'Namsarok' of Kim Sang-heon (Cheongeum)

Boo, Young-geun*

This thesis surveys 'Namsarok', a record of the achievements of Kim Sang-Heon (pen name, Cheongeum) during 6 months when he, as a royal secrete inspector, stayed in Jeju to calm down the public sentiment of Jeju people.

As known well, he was a literary man who lived a short but solid life. During his lifetime, he showed this outstanding literary talent to the full, and his works show his spirit sufficiently.

In particular, during the 4-month stay in Jeju, he depicted what he felt looking at the landscape of Jeju with his unique literary capability. The collection of works written during such period is 'Namsarok'. In those works, he described the distinctiveness of Jeju, and severely criticized the 5 evils of Jeju he identified at that time. Accordingly, the present author incorporates this study into the literature of visitors describing the landscape of Jeju, and is to develop it as a part of existing scope of study.

This study produced a certain level of performance within a framework of Sino-Korean literature which described the scenery of Jeju. The present author hopes that subsequent studies will follow on the basis of this study.

* Research Professor, Daegu Haany University

Key Words

travel literature, scenery, natural environment

교신: 부영근 712-715 경북 경산시 유곡동 290번지 대구한의대학교 5호관 607호
(E-mail: dudrms11@komet.net 전화: 053-816-7825 / 016-504-7850)

최초 투고일 2006. 5. 29

최종 접수일 2006. 7. 4